



벤투의 지론

“빌드업 축구는 한국 대표팀에 가장 적합”

대표팀 최근 북한·레바논·브라질 경기 ‘무승’ 벤투, 귀국후 ‘빌드업 축구’ 강한 믿음 드러내

“빌드업 축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에 가장 적합합니다.”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최후방 수비진부터 시작해 전방 공격진까지 유기적으로 불을 연결하는 ‘빌드업 축구’가 태극전사들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지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월 두 차례 A매치 원정을 마친 벤투 감독은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입국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빌드업 축구’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냈다.

벤투 감독은 “2차 예선 성적에 기대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빌드업 축구가 유효한 전술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빌드업 축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계속해 나가고 있고,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에서 4경기를 치르는 동안 2승 2무(승점 8)의 성

적을 거두면서 한 경기를 더 치른 투르크메니스탄(3승 2패·승점 9)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에 랭크됐다.

다만 한국은 최근 북한과 3차전, 레바논과 4차전까지 황당한 ‘연속 무관중 경기’를 치르는 동안 득점 없이 비겼고, ‘최강 전력’의 브라질에 0-3 완패를 당하는 등 최근 3경기 연속 무승(2무 1패)에 빠졌다.

벤투 감독은 대표팀의 3경기 연속 무득점에 대해 “최대한 골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어제 브라질전도 골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했다”라며 “득점을 만드는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임 이후 베스트 11의 변화가 적

어 내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의견을 존중하다”라며 “다만 레바논전과 브라질전과 마찬가지로 두 경기의 전술과 선수 구성이 달랐다. 선수 선발에 대한 의견은 감독으로서 존중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벤투 감독은 “브라질 평가전에서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브라질은 전방 압박을 잘하는 팀이다. 경기 중에 우리도 좋은 장면을 연출했다”라며 “빌드업을 통해 공격까지 이어가는 장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봤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주-중 스포츠로 우정 쌓는다

제주교류단, 하이난성 방문해 친선대회 하이난 자연·역사·문화 등 이해의 장도

제주와 중국 하이난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쌓는다.

20일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2019 제주-하이난 스포츠 교류가 이날부터 24일까지 중국 하이난성 일원에서 펼쳐진다. 제주에선 김범희 도체육회 부회장을 단장, 강문우 대기고 교장을 부단장으로 축구선수와 경기임원, 운영원 등 총 27명이 참가하고 있다.

2005년부터 꾸준히 이어지는 제주와 하이난의 스포츠교류는 두 지역 청소년들이 경기력을 향상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장이 되고 있다. 올

해 역시 친선경기를 비롯해 하이난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제주교류단은 올해 방문에서 교류 종목의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성 일원에서 펼쳐진다. 제주에선 김범희 도체육회 부회장을 단장, 강문우 대기고 교장을 부단장으로 축구선수와 경기임원, 운영원 등 총 27명이 참가하고 있다.

“교류지역과 종목을 다양화하면 국제 스포츠 교류 지역으로서의 제주 이미지를 높이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2019 KBO 파격 2차 드래프트 정근우·채태인 ‘낮선 새출발’

‘흙 속의 진주’를 찾는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서 이름값 목적인 베테랑 선수들이 부름을 받았다.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KBO 2차 드래프트에서 1982년생 동갑내기 정근우(37)와 채태인(37)이 난란히 파격적인 선택을 받은 것이 눈에 띈다.

정근우와 채태인은 각각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의 40인 보호 명단에 들지 못해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각각 LG 트윈스, SK 와이번스로 팀을 옮기게 됐다.

2차 드래프트는 각 구단의 전력 강화와 출장 기회가 적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확대해주는 취지로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잠재력 있는 유망주 수요가 커서 2017년 1~2년 차 선수는 지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기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베테랑이 2차 드래프트로 팀을

옮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2015년 2차 드래프트에서 LG 트윈스의 주장을 맡았던 이진영 현 SK 코치가 전체 1순위로 kt wiz 지명을 받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정근우는 2008 베이징올림픽과 2015 프리미어12에서 한국의 우승을 이끈 국가대표 2루수 출신이다. SK에서 2005~2013년까지 활약한 정근우는 2013시즌 후 자유계약 선수(FA)로서 4년 70억원에 한화 유니폼을 입었고, 2017시즌 후에는 2+1년 총 35억원에 FA 재계약을 하며 한화에 잔류했다.

채태인은 2001년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에 투수로 입단했으나 왼쪽 어깨수술 후 재기하지 못하고 2005년 방출당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군 복무를 마치고서는 2007년 해외파 특별 지명으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타자로 전향했다. 연합뉴스



“이별사” 피닉스 선스 가드 데빈 부커(가운데)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크리멘토에서 열린 샌크리멘토 킹스와 미국프로농구(NBA) 경기 후반전에서 상대 가드 코리 조셉(왼쪽)의 수비에 막혀 솟아 실패하고 있다. 샌크리멘토가 120-116으로 승리했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 절차 본격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 위촉

제주도체육회가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을 맞이 위한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제주도체육회는 20일 도체육회장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인사를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은 ▷강군생 제주관광대 간호학과 교수 ▷강봉현 제주국제대 부동산법무행정학과 교수

▷강창균 법륜사무소 청어람 변호사 ▷고관용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방홍 KBS제주방송총국 심의위원 ▷김영욱 전 한국생활개선회 제주회장 ▷문관영 제주경제상상진흥원장 ▷장용석 제주도배구협회 부회장 ▷전정배 제주도체육회 인사위원이다. 간사는 부두찬 도체육회 총무부장이 맡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도체육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선거일(투표일) 확정 등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제주Utd 특별 이벤트 수원전서 팬 감사 무대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가 될 수 있는 수원전에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선물을 풀어놓는다.

제주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19 37라운드에서 수원삼성블루윙즈와 격돌한다. 이날 경기는 1부 리그 잔류를 위한 중요한 승부차인 데다 그 결과에 따라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가 될 수 있다. 이에 제주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할 다채로운 이벤트로 경기 전후 시간을 채울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오늘의 운세 21일. Daily horoscope section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for the day.